

Global Energy Dialogue, 세계 에너지 대화의 중심에 서다.

- 이름 : 박소연
- 근무기구 및 부서 : 파리 소재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회원국에너지정책과 (Country Studies Division, CSD)
- 직위 : 인턴
- 지원 경로 : 국제기구인사센터 국제기구 인턴십 공고
- 근무 기간 : 2015.8.17.- 2016.2.16 (6개월, 현재 근무 중)

에너지란? 세상의 평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서는 '세상의 평균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내 삶에 들어온 '에너지'란 광범위한 주제가 늘 매력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없이 살 수 없게 된 우리 세상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개인의 기여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영역이란 점에서였다.

이러한 관심으로 플랜트 업계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인턴 지원 당시 나는 업계 5년차 '박소연 대리' 이자, 에너지자원공학과 특수대학원에 갓 입학한 대학원생이었다.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제리, 트리니다드토바고, 볼리비아 플랜트 현장에 발을 디디며 정유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을 경험하며 산유국 에너지 정책과 국제유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추어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플랜트업계에도 탈황공정 기술 적용이 활발해지고 있었고, 국가별 에너지 정책 밑그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제재생에너지기구와 같이 특정 에너지 전문 국제기구들도 있지만 모든 에너지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가 유일하기에 자연스럽게 IEA 인턴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인턴 지원 및 인터뷰

2015 년 상반기에는 IEA Oil Market Analyst 와 Energy Policy Analyst 직에 각각 지원하였으나 서류 지원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학업과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 선물처럼 IEA 인턴직 공고가 올라왔다. 마침 지원 시기에 국제기구 인사센터 주최 설명회가 열렸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조언, 인터뷰 시연, 국제기구 직원과의 대화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1 차 외교부 면접은 서류 합격자 7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4 명의 심사관과의 영어면접이었다. IEA 설립 배경과 목적, 과거 경험과 인턴직의 연관성, 인턴직무에 대한 이해, 인턴 이후 계획, 에너지 부문 당면 과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인 의견, 파리에서 하고 싶은 것 등 질문이 있었고, 20 분가량 진행되었다. 2 차 면접은 1 차 면접 통과자 3 명과 IEA Country Studies Division Head 의 일대일 전화면접이다. 현재는 다른 분이 맡고 계시지만, 당시 Head 는 우리나라 최초 IEA 관리직(A5) 진출자인 김기준 국장님이셨고, 40 분 가량 영어로 진행되었다. 1 차 면접과 유사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요구되었고, IEA 의 지향점 및 IEA 주요 발간물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두 차례의 면접 전 IEA, 인턴 부서 및 직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설립 목적, 비전, 회원국, 주요 활동과 발간물을 확인하였고 사무총장의 주요 연설문을 읽으니 IEA 가 나아가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IEA 조직도는 내가 지원하는 부서의 조직 내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실무에서 작성하게 되는 문서들이 공개되어 있어 실제 업무를 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았다. 에너지 분야 공공부문과 민간산업 연계의 중요성, 시민 의식 제고와 올바른 에너지 교육은 평소 관심 있던 부분이라 사례를 들어 피력하였는데, 업무상 읽어온 저널의

에너지 주요 이슈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장의 약진과 저유가 시대 산유국의 대응 관련) 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자원개발에 대해 교수님 및 선배들과 나눈 대화는 면접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회원국 에너지 정책 연구과 그리고 나의 업무

인터뷰를 하게 된 부서는 회원국에너지정책연구과 (Country Studies Division, CSD) 로, IEA 29 개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순환하며 검토, 분석, 권고하는 부서이다. Head of Division, 3 명의 Desk Officers, Statistician, Team Assistant 총 6 명인 작은 팀이다. Desk Officer 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팀을 꾸려 정기적으로 담당 국가에 방문하여 에너지 정책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IDR (In-Depth Review Report) 이라는 정책리뷰문서를 작성한다.¹ 사무총장이 회원국을 방문하는 경우 Desk Officer 가 동행하거나 정책 브리핑을 하기도 하며, 외부 기관에서 IEA 의 전망 및 정책 평가에 의견을 내는 경우 IEA 내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답변하기도 한다.

나의 인터뷰 기간 정책 리뷰 대상 국가는 프랑스와 체코였으며, 해당 국가 출장 시 참고할 국가 에너지 정책 Briefing note 와 통계자료 준비 업무가 내게 주어졌다. 정유 플랜트 현장 경험은 있었지만,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가스 시장과 전력 시장에 대한 이해, 기후 변화는 생소한 주제라 Desk Officer 들에게 수시로 질문하기도 하고, 읽을거리를 들고 퇴근하는 날도 잦았다. IEA 회원국 중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많아 EU Directives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지침) 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기후변화대응 관련 UNFCCC 의 효력,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로드맵을 숙지해야 한다. Briefing note 준비 후 팀

¹ <http://www.iea.org/countries/membercountries/> 에서 국가명을 선택하면 최신 IDR 을 볼 수 있다.

분들의 배려로 프랑스 정부 방문 (MEDDE, 환경·지속 가능한 개발·에너지 부) 출장에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운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 전환법 (Energy Transition Law) 의 중심축인 '세계 원전 강국의 탈원전 로드맵'을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각료이사회(The Ministerial Meeting, 11/17~11/18) 행사를 보조하면서 29 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파트너 국가들의 에너지부 장·차관급 인사 및 에너지기업 CEO 가 참석한 자리에서의 다자/양자외교, 민관협력, 신임 사무총장의 IEA 운영 비전 공유 현장을 경험하였다. 연 2 회 진행되는 장기협력상설그룹 (Stand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on, SLT, 10/5~10/6) 진행 보조도 도왔는데, 회원국간 에너지 부문 공통 이슈를 토론하고 국가 정책 리뷰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IEA 가 매년 11 월 발간하는 에너지전망보고서 World Energy Outlook 2015 가 발간되기 전에는 한글 요약본 확인 업무를 하며 미리 읽어볼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다. 한국인이 적은 조직이라 우리나라 공공기관 데이터, 기관 연락처 확인, 출장지 및 여행지 문의 등에 소소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4 개월차인 현재, 체코, 벨기에, 터키 에너지정책분석 (IDR) 집필에 참여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 리서치 및 분석을 돕고 있다.

2015 년 가을의 프랑스, 파리 그리고 IEA -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에 서다.

2015 년 가을, 이 아름다운 파리에서 IEA 인턴인 것에 대한 감사는 매 순간 다가온다. 첫 번째 감사는 앞서 설명한 프랑스 정책 리뷰에 참여한 것으로, 올해 3 월 가결된 프랑스 에너지 전환법을 공부하고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전력생산량 70% 이상을 원자력이 차지하는 원전 강국이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전력생산을 다각화하려는 계획, 에너지 경제학자의 시나리오별 전망을 직접 듣게 되었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가적 합의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산업/NGO 와의 협업, 국민 대토론회 실시) 를 중요한 축으로 다룬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감사는 이 수기를 쓰고 있는 현재, 제 21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가 파리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정도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며,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이 시점에 에너지 분야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IEA 내부망을 통해 COP21 현장 소식을 매일 공유 받고 있으며, 내일은 IEA 가 주도하는 토론의 장에 직접 참관하여 에너지 분야가 기후변화에 내놓는 메시지를 현장에서 듣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감사는 석유 소비국의 모임에서 세계 에너지 리더로 도약하는 IEA 전환기를 눈 앞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인턴 3 주차, 신임 사무총장 Mr. Fatih Birol 이 취임하면서 'Modernization of the Agency' 를 선언하였다. IEA 는 제 1 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4 년에 OECD 회원국들이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공급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산유국들의 국제기구인 OPEC 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석유소비국이 결성한 기구로서 기본적으로는 석유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에너지정책 포럼, 에너지기술 연구협력체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IEA 의 비전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으며, OPEC 근무 경력 이후 20 여년을 IEA 에서 근무한 신임 사무총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올해 9 월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기존 회원국들의 가입 조건인 전략비축유 보유 의무에서 나아가 천연가스 확보에 대한 의무 부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숨겨진 연료(hidden fuel)라 불리는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흥경제국 중국,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십을 추가로 맺었다. 이렇게 IEA 의 변화는 세계 에너지 부문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²

² <http://www.iea.org/newsroomandevents/pressreleases/2015/november/energy-ministers-set-course-for-new-era-at-iea-.html>

마무리하며 -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꿈을 같이 꾸는 것

IEA 는 약 240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크지 않은 조직이다 보니 사무총장님과 엘리베이터를 단둘이 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며, IEA 직원들의 단골 바 'L'atome'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다른 부서원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다. 점심시간에 격주로 열리는 Noon Talk 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이 열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big IdEAs' 라는 토크시리즈가 생겨 외부 저명인사 초청 강연을 매달 함께 듣는다.³ 이 곳에서 만나게 된 인턴들은 경제학, 통계학, 투자학, 개발학, 정치외교학, 신재생에너지학 등 각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석사 혹은 박사 과정 학생들인데 에너지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지대하다. 각자 배경과 목표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계 에너지 논의를 이끌어 가는 공간에서 동료들과 꿈을 나누는 것은 보람된 경험이며, 국제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간다.

수기를 작성하는 현재 진행 중인 인턴 생활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싶으며 이 경험이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

▼ 신입 사무총장 취임 후 All staff meeting

³ <https://www.iea.org/newsroomandevents/events/bigideas/>



▼ 프랑스 에너지 정책 리뷰, 환경·지속 가능한 개발·에너지 부 (MEDDE) 방문



▼ OECD 에서 열린 The Ministerial Meeting (각료이사회)



▼ 외부 저명인사 초청 강연 첫 번째, 아일랜드 첫 여성대통령 Mary Robinson



▼ IEA 인턴 친구들과 함께한 마드리드 여행



▼ IEA 인턴 친구들과 함께한 점심 산책

